

[습근평 총서기의 국정운영 기록]

개혁 전면 심화로 중국식 현대화의 전망 펼쳐자



심수—중산 통로. 6월 30일, 7년에 걸쳐 건설된 국가 중대 공사인 심수—중산 통로가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이로써 심수에서 중산까지의 자동차 거리는 원래의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었다. / 신화넷

올해는 새 중국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이고 ‘제 14차 5개년 전망계획’ 목표과업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올해 습근평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을 완성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이 중심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과 대국의 높이에서 발전을 모색하고 사업을 배치함과 동시에 일련의 중대한 결책포치를 내려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서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지도했다.

올해 4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올해 7월 북경에서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소식 이 발표된 후 국내외의 깊은 주목을 받았다.

당중앙 18기 3차 전원회의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친히 계획하고 친히 포치하며 개혁의 전면 심화를 친히 추진함으로써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

족 인민을 인솔하여 전례없는 강도로 사업 발전의 새로운 전지를 펼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불가역의 역사 로정에 들어섰다.

20차 당대회 폐막후 총서기는 줄곧 개혁을 가일층 심화할 문제를 생각했다.

올해 들어 많은 시찰과 연구 그리고 많은 중요한 회의를 통해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 지도원칙, 목표과업, 중대 조치, 과학적 경로 등 중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천명했다. 2024년 음력설 하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심층차원의 체제기제적인 장애와 구조성 모순을 타파하기에 힘쓰며 전사회 창업과 혁신, 창조의 활력을 충분히 동원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강대한 동력을 주입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건설이 가시발길을 헤치고 융왕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진행하고 각 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청취하는 것은

우리 당이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중요한 문건을 제정하는 일관된 방법과 우량한 전통이다. 올해 5월 20일, 습근평 총서기는 중남해에서 당외인사 좌담회를 열고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결정고와 관련해 여러 민주당파중앙, 전국공상업자련합회 책임자, 무소속인사 대표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

3일후 습근평 총서기는 산둥을 시찰할 때 특별히 기업과 전문가 좌담회를 주재하고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포용적인 태도로 의견을 수렴했다. 전원회의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선후하여 3차례 회의를 열고 심의와 개정을 진행했다. 인민의 기대와 전당의 지해를 응징한 한부의 개혁 방안은 날로 성숙되어갔다.

7월 15일 오전, 세인이 주목하는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가 북경에서 개막되었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았다.

습근평 총서기는 <결정 (토론고)>과 관련해 전원회의에서 설명을 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무엇 때문에 개정하고 어디를 개정하였으며 어떻게 개정하였는지 등 일련의 중대한 리론과 실천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4일간 습근평 총서기는 선후하여 두차례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분조토론에 참가하면서 회의에 참가한 동지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 18일 오후, 습근평 총서기의 주재하에서 전원회의는 거수 표결의 방식으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채택했다.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개혁 조치를 중점적으로 포치한 이 강령성 문건은 새시대, 새 로정에서 개혁의 전면 심화가 더 폭넓게, 더 심도 있게 진군하도록 추진하는 총동원이고 총포치로서 중국이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내외 국제에 방출했다.

중앙당학교 연구실 주임 심전량은 <결정>은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총목표와 중대 원칙을 명확히 했고 300여가지 중요한 개혁 조치를 제출했다며 이는 당중앙 18기 3차 전원회의 이래 개혁의 전면 심화 실천의 속편 (续篇) 이자 새 로정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시대의 새 장이라고 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을 통해 전원회의 정신을 잘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은 당면과 급후 한 시기 전당과 전국의 중대한 정치과업이라며 전당은 일심협력해 <결정>의 관철을 잘 틀어쥐고 개혁 전면 심화의 전략적 포치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강대한 힘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결정>의 ‘청사진’을 ‘공필화’와 ‘시공도’로 전환시켜가고 있다. 개혁의 전면 심화의 보폭은 기필코 더 안정적이고 빠를 것이며 중국식 현대화는 기필코 더욱 활기차게 발전해나갈 것이다. / 중앙인민방송

‘중국 새시대 개혁 심화의 세계적 기회’ 글로벌 대화회의 아시아 시리즈 개최



한국 한중련합회 회장 박승찬이 <결정> 관련 해독 강의를 하고 있다.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중국 중앙방송총국이 주최한 ‘중국 새시대 개혁 심화의 세계적 기회’ 글로벌 대화회의가 최근 일본·한국·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만마·토이기·아프가니스탄·몽골 등 나라에서 잇달아 열리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정계 요인과 싱크탱크 전문가, 기업 지도자, 언론인, 청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의 가일층 전면적 심화와 고수준의 대외 개방 완비 등 분야에 대한 중공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배치와 결부하여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아시아 국가에 가져다주는 계시와 기회를 담론했다.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루카와 도모오는 “중공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다양한 산업정책을 다루고 있어 일본이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한편 만마, 한국, 토이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청년 대표와 언론인, 기업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직장생활

을 하며 경험한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공유했다. 그들은 중국의 발전이 각국에 넓은 협력의 대문을 열어놓아 세계에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한중련합회 회장 박승찬, 인도국제대학 중국학원 원장 아비제트 배나지, 청화대학—노무라종합연구소 중국연구중심 부주임 가와시마 이치로 등은 ‘전면적 혁신’을 동력으로 하는 중국의 ‘고품질 경제 발전’에 주목했다. 그들은 현재 세계경제에 여전히 적지 않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배경하에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세계경제에 확실성과 긍정적 인 에너지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각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현지 언론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한국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시아뉴스그룹 등이 한국에서 열린 대화회의를 보도했다. / 신화넷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중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2일,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司) 사장 주빙은 소식공개회에서 개방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없앨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장 진입 확대 조치를 취해 외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특히 외국인 투자 산업 리스트를 확대하고 >전자정보>인터넷>교육>문화>의료 등 분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빙은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장기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된 규칙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곳이라며 광활한 시장, 우수한 산업 시스템 및 고급 인재 공급 등 중국 경제의 강점을 강조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해외직접투자(실제 투자 기준) 유치액은 약 5,000억 원, 등록된 외국인 투자 기업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어난 2만 7,00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화넷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크나큰 정치적 용기와 지혜로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추진하여 우리 나라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둘러싸고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는 총체적인 포치를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개척하는 시대의 나팔소리를 울렸다.

주장에 밀물이 밀려오고 만구(灣區)에 바람이 불어온다. 개혁개방의 뜨거운 땅에서 ‘시대의 새로운 장’이 한창 펼쳐지고 있다.

전국의 새로운 발전 구도에서 월항오대만구(粵港澳大湾区)는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 규칙의 ‘융합점’, 국제와 국내 쌍순환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항, 오문을 바다, 육지, 다리로 동시에 연결하는 독특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공북(拱北) 해관은 바로 개혁개방의 박동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다.

공북통상구는 주해와 오문을 잇는다. 오문 주민 랑녀사는 “현재 통관이 매우 편리해져 오문 주민들이 나들이 하듯 주해를 오가며 쇼핑하고 출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속 11년 동안 이곳은 전국에서 려객 류동량이 가장 많은 료로 려객 검사 통상구로 되었다.

황금통상구는 오문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다리와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 출경하는 차량 운전사는 차에

서 내릴 필요 없이 지문, 증명서, 체온 등 여러가지 정보 수집을 단번에 완료할 수 있으며 광둥, 오문 두 지역의 5개 집법기관이 각자 검중에 나서 통관 효율이 40% 향상되었다.

월항오대만구 대교통상구는 세계의 다른 지역을 연결한다. 통관하고 있는 항항 출신의 유치원 교사 림녀사는 매주 자가용으로 내지에 와서 쇼핑하고 관광하며 맛있는 음식을 맛본다. 하루 평균 출입경 관광객은 연인원수로 7만명, 차량수는 1만 3,000~1만 5,000대에 달한다. 대교를 통한 ‘항항, 오문 차량의 복상’이 새로운 풍경으로 되었다.

사람들이 손조롭게 외출할 수 있고 차량이 막힘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 화물이 빠르게 운송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개혁혁신의 ‘정밀화 추진’으로 인해 인원들을 ‘번거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통관시키면서도 감독관리 써비스는 ‘빈틈없었다’.

2023년, 월항오대만구의 경제총량은 14조원을 돌파하여 우리 나라에서 개방 정도가 가장 높고 경제 활력이 가장 강한 지역의 하나로 되었다.

2018년 10월, 항주오(港珠澳) 대교가 개통된 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교통상구를 통한 수출입 총액은 8,800억 원을 초과했으며 화물 수발지(收发地)는 내지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

[새시대 개혁개방 제일선] 심층적 개혁으로 고수준 개방 추진



2023년 10월 1일, 관광객들이 오문 대삼바페방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 신화넷

고 시장은 230여개 국가와 지역을 망라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길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한다.”라고 말

했다. 개혁개방의 제일선에서 광동의 개혁개방의 ‘선구자, 선도지역, 실험구’ 역할을 싣감하면서 총서기의 말을 더 심층적으로 리해하게 되었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

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뜻을 올리고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빛나는 앞날을 개척해야 한다.

중국은 시대와 력사의 흐름에 따라 대외개방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스스

로를 발전시켰으며 세계경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했다.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징표이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고수준의 대외개방 체제와 기제를 보완할 데 대해 포치하여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세계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세계에 알렸다.

2023년부터 우리 나라는 프랑스, 독일 등 15개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싱가포르, 타이 등 7개 국가와 상호 무비자 입국 협정을 체결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각 통상구를 통한 입국 외국인은 연인원 1,463만 5,000명으로 2023년 동기 대비 152.7% 증가했다. 그중 무비자 입국자는 연인원 854만 2,000명으로 2023년 동기 대비 190.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 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2023년 동기 대비 6.1% 성장해 처음으로 21조원을 초과했으며 수출입 성장 속도는 분기마다 더 빨라졌다. 전국적으로 근 2만 7,000개의 외자기업이 새로 설립되어 동기 대비 14.2% 증가했으며 외자유치 구조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화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료상과 해상 통로에 의한 내외 련동, 동부와 서부 지역의 쌍방향 공제(互济)에 기초한 개방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 고수준의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 인민넷—조문판